

잃은 양을 찾아라

본 문 마태복음 18장 10~14절

1. 본문 말씀에 <잃은 양을 찾는 비유>를 보면, “양 백 마리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길을 잃었다.” 라고 했다. 목자의 관리 부족으로, 또 양이 제 맘대로 함으로 양의 무리에서 이탈하여 양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다.

주인은 “아흔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 라고 했다. 잃고 마는 것이 아니라, 잃은 것을 찾는 것이 주인의 뜻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하나님과 성령님의 절대 뜻이기도 하다.

2.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생명을 잃어버렸으면, 찾는 것이 뜻이다. 목자가 양을 찾듯이, 잃어버린 생명들을 찾는 것이 나 여호와 의 뜻이다.” 하셨다.

3. 생명들을 잃어버리는 원인을 보면, 관리 부족으로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 생명이 자기가 처한 환경대로 살다가 스스로 하나님의 중심권에서 떠나기도 한다.

4. 같이 따르던 생명들이 안 보이면 ‘찾아오는 것’ 이 하나님과 성

령님의 뜻이니, 모두 찾아서 데려와야 된다.

5. 자기 개성대로 ‘가야 할 길’ 이 있고, ‘해야 될 일들’ 이 있다. 그러므로 진로 결정을 잘 인도해 줘야, 생명들이 딴 길로 안 가게 된다. 그 사람의 인생의 갈 길을 모르고 자기 주관대로 생명을 이끌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운명대로, 재능과 능력대로 잘 분별하고 이끌어 줘야 된다.

6.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 집에서 말씀을 듣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자기가 자기의 지도자’ 가 되어 하면 되는데, 자기 책임을 안 하다가, 기도를 안 하다가, 신앙을 중하게 여기지 않고 게을리하다가 결국 말씀도 제대로 안 듣고 간혹 듣게 되는 자들이 있으니, 이런 자들은 모두 ‘신앙이 병든 자’ 요, ‘신앙의 잠을 자는 자’ 요, ‘잃은 양에 속한 자’ 다.

이런 자들에게도 말씀을 주어 살아나게 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벗어나게 해 주는 자가 ‘잃은 양을 찾는 목자’ 다.

7. 모두 이끌어 주고, 잡아당겨 주고, 아픈 자들은 자기 몸같이 귀하게 여기며 치료해 줘야 잃은 양을 찾는다. 기도 조건을 세우고 성령과 주와 함께 가서 살피주고, 도와줘야 된다.

8. 생명의 사정을 알고, 같이 해결해 줘야 된다. 잃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잃은 생명의 사정을 알아주고 행하면서 성령과 주와 함께 찾아와야 된다.

9. 잃은 양은 ‘왜 잃게 됐는지 알아야’ 찾을 수 있고, 찾았어도 ‘왜 잃게 됐는지 완전히 알고 그것에 맞춰 대해 줘야’ 예전같이 한 무리에서 주를 머리 삼고 삼위와 형제와 하나 되어 살게 된다.

10. 양을 잃고 그냥 놓아두면, 스스로는 돌아오지 못한다. 울타리 밖에는 양을 잡아먹는 짐승이 있기 때문이다.

무리에서 떨어진 양을 노리는 야수가 있어 잃은 양 스스로는 살아남지 못하듯이, 섭리사에서 떨어져 나간 잃은 생명들도 스스로는 정상적으로 존재하지 못한다. 스스로 사탄과 유혹자와 악평자와 세상의 각종 야수 같은 자들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목자는 이를 깨닫고, 절대 잃은 양을 홀로 오래 두면 안 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아야 된다.

11. 잃은 양들을 겪으며 대화해 보니, 양의 목자가 양을 잃었는지도 모르고, 관리하여 찾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죽은 줄 알고 포기하기도 했고, 그 생명이 자기 책임을 안 하니까 그냥 두기도 했고, 교역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깨어 있지 않아서 생명을 뺏기기도 했다. 또 지도자가 다른 것에 신경 쓰고 거기에 빠져서 사니, 생명들을 깊이 관리하지 못해서 잃기도 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철저히 행해야 된다.

12. 잃은 생명뿐만 아니라 저마다 <자기가 잃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찾아야 된다. 기도를 잃었든지, 말씀을 잃었든지, 감사를 잃

었든지, 찬양을 잃었든지, 하나님과 성령님과의 교통을 잃었든지, 첫 마음을 잃었든지 하면, ‘그 면에서 자기라는 양을 잃은 자’가 된다.

13. <양>은 ‘목자’와 절대 친해져야, 무리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생명>도 ‘목자인 주’와 친해져야 교회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려면 말씀과 친해지고, 기도와 친해지고, 찬양과 친해지고, 감사와 친해지고, 사랑과 친해지고, 부지런함과 친해져야 된다. 그래야 ‘교회’를 벗어나지 않고, ‘자기라는 양’을 잃지 않게 된다.
14. <잃어서는 안 될 것>을 잃고 목자의 품을 떠나면, 양이 이리와 야수와 늑대와 사자와 각종 들짐승들에게 잡아 먹혀 죽듯이, 사망의 골짜기에 빠져 죽게 된다. 특히 ‘말과 행실의 뜨거움’은 잃어서는 안 될 것들이다.
15. <자기 생명>도 <타인의 생명>도 철저한 관리다. 매일 관리다.
16. 양이 자신을 대하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 행하듯이, 생명들도 그러하다. 목자와 양이다. 머리와 지체다. 주와 따르는 자들이다. 누구든지 주를 통해 삼위와 일체 돼야, 생명 구원을 받고 정상적으로 존재하게 된다.
17. <잃은 생명>을 찾아야 되고, <자기에게 속한 각종 잃은 것들>을 찾아야 된다.

18. 잃은 양을 찾는 심정으로 매일 ‘생명들’을 찾고, ‘자기 할 일’을 찾아야 된다.
19. <잃은 첫사랑>을 찾아야 된다. 요한계시록 2장 4~5절에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했다. 저마다 ‘뜨거웠던 첫 마음, 첫 행실, 첫사랑’을 왜 잃게 됐는지, 어디에서 잃게 됐는지 깨닫고 되찾아야 된다.
20. 하나님은 생명들을 결단코 이끌어 내신다. 사탄과 악인들이 빼앗아 가도, 결국 진노의 심판을 하시면서 다시 빼앗아 오신다.
21. 자기 생명을 뺏기지 않게 조심해야 되고, 잃은 양과 하나님이 보내 주시는 생명들을 귀하게 여기고 대해야 된다.

◎ 오늘 말씀을 듣고,

<자기에게 속한 잃은 것들>을 찾고,

<자기와 관련된 잃은 생명들>을 찾기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